



스프링캠프 티켓이 걸린 운명의 관문. 내야수 신본기(맨 앞쪽)를 비롯한 롯데 선수들이 6일 사직구장 인근 육상경기장에서 체력 테스트에 참가해 역주를 펼치고 있다. 프리에이전트(FA)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최준석은 1000m 달리기에 참가해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강민호가 테스트를 마친 후 털썩 드러누워 숨을 고르고 있다.(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직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jun

최준석 “같이 뛰어준다 하더니 휑…무서운 사람들”

롯데 9년만에 실시한 체력테스트 현장

무릎 이상 최준석·정대현 불참한다 하더니
정대현, 페이스메이커 사양…1000m 완주
최준석도 1000m 5분5초 기록 ‘전원 합격’
전체 1위는 신인 투수 김유영의 3분12초
1등 큰소리 친 손아섭 중하위…복통 변명

롯데 체력테스트가 6일 시무식 직후, 사직구장 인근 육상경기장에서 열렸다. 롯데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체력테스트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롯데 김시진 감독은 “누군가를 탈락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이 비활동기간 최소한의 몸은 만들라는 의미에서 테스트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험 종목은 달리기였다. 선수들은 100m 10회, 200m 8회, 1000m 1회 달리기 중 1개를 선택해 제한시간 내에 들어오면 합격이었다. 연령별로 조금씩 시간에 여유를 둬 고참 선수를 배려했다. 그러나 테스트는 테스트. 만에 하나 탈락자나 부상자가 나올까봐 코칭스태프와 구단관계자는 노심초사하는 눈치였다.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

롯데는 5일 밤 ‘체력테스트는 선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기록이 떨어지는 선수의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그러나 막상 체력테스트가 열리자 자연스레 공개가 됐다. 선수들은 오랜만에 소집돼 다함께 뛰는 상황이 펼쳐지자 예민함을 내비치기보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공개 테스트에 응했다. 선수들 대부분은 1000m 1회 뛰기를 선택했다. 강민호와 손아섭은 “1등하면 신문에 크게 써줄 것이냐”고 큰소리를 쳤지만 정작 결과는 레이스 중반 이후 헉헉거리다 중하위권에 그쳤다. 그래도 강민호는 “고참조에서 5등이다. 뉴질랜드 다녀온 보람이 있다”고 넉살을 부렸다. 손아섭은 “점심 먹고 뛰어서 복통이 왔다”고 비겁한(?) 변명을 해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선수들은 달리면서 “죽겠다”를 연발했지만 중도포기자 없이 전원 합격했다. 특히 투수진 최고참 이용훈(37)은 3분31초의 놀라운 기록으로 근성을 보여줬다. 전체 1위는 신인투수 김유영의 3분12초였다.

●최준석·정대현의 아름다운 완주

코칭스태프가 가장 걱정한 것은 탈락자보다 부상자 발생이었다. 김 감독은 테스트 직전까지만 해도 “최준석과 정대현은 무릎이 안 좋아 못 뛸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부터 무릎 상태가 완전치 않은 두 선수가 자칫 무리하다 다치면 전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특히 두산에서 프리에이전트(FA) 영입된 최준석은 “내가 야구하러 왔지 달리기하러 온 것 아니다. 큰돈(4년 총액 35억원)을 받고 왔는데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나는 안 뛴다”고 밝혀 부담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막상 테스트가 시작되자 먼저 투수조의 정대현이 뛰었다. 정대현을 따르는 강영식이 “페이스메이커를 해 주겠다”고 했지만 행여 폐를 끼칠까봐 사양했다. 정대현은 송승준과 최하위 그룹에서 뛰다가 꼴찌로 처졌다. 두 바퀴째를 돌 때 김 감독은 박수까지 쳐주며 “지금 페이스대로만 뛰면 제한시간 안에 들어온다”고 격려했다. 정대현은 5분8초의 기록으로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어 달린 최준석도 5분5초의 기록으로 합격했다. 사실 최준석은 남몰래 달리기 연습을 하다 종아리 근육통까지 입었는데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에 성공했다. 최준석은 “내가 뛰면 같이 뛰어주겠다고 해서 믿고 뛰었는데 막상 시작하니 다 먼저 뛰어가 버리더라. 무서운 사람들”이라며 웃었다. 발목 수술을 받은 전준우와 장염으로 병원에 간 김승회만 열외였을 뿐, 선수 전원이 합격했다.

사직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전 선수 ‘아이패드’ 지급…왜?

상대팀 전력분석 동영상·자료 분석 위함
롯데 최하진 사장, 시무식서 복지안 공개

롯데 최하진 사장은 6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구단 시무식 신년 연설에서 ‘우승’이라는 단어를 총 12회 사용했다. ‘꿈속에서도 목표를 생각하라’는 ‘몽중일여’라는 고사까지 인용해 우승을 향한 강한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최 사장은 우승을 위한 조건으로 최선,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롯데의 문화처럼 통했던 온정적 가족주의를 넘어 철저히 실적 위주로 상벌을 따지겠다는 의지다. 그 결과 프리에이전트(FA)와 연봉 협상에서 극과 극 연봉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끌어내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팀 내에 위화감이 돌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를 의식한 듯 최 사장은 미리 써놓은 원고읽기를 마친 뒤, 40분 이상 롯데 구단이 선수들에게 제공할 복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대표적인 방안이 전 선수들을 위해 상해보험을 들어준 조치다. 이런 보험이 없는데 최 사장이 롯데 계열사에 따로 부탁을 해서 만들어낸 상품이다. 경기 중 사망 시, 최고 10억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롯데 최하진 대표가 6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구단 시무식에서 선수단에게 신년사를 하고 있다. 최 대표는 총 12차례 ‘우승’이라는 단어를 말했다. 사직 | 김종원 기자

이밖에 전 선수단에 순차적으로 아이패드를 준다. IT기기를 이용해 상대팀 전력분석 동영상이나 자료를 언제든 볼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이밖에 롯데에서 은퇴하는 선수의 해외구단 코치 연수 기회, 자이언츠 명예의 전당 설립 구상, 심리 트레이너 도입, 병원과 연계한 재활 프로그램 추진, 선수와 사장의 이메일 소통을 약속했다. 우승은 투자와 신상필벌뿐 아니라 소통과 소속감의 결합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사직 | 김영준 기자

NC 이종욱 39번·손시헌 13번 ‘등번호 그대로’

등번호 주인 찰리·최재원 선뜻 양보
이종욱·손시헌 “첫 4강 진출 이룰것”

프리에이전트(FA)로 NC에 입단한 이종욱(34·사진 왼쪽), 손시헌(34·오른쪽)이 정든 등번호 그대로 제2의 프로야구 선수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이종욱과 손시헌은 6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구단 시무식에서 각각 39번과 13번 유니폼을 입고 참석했다. 두산에서 수차례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함께했던 영광의 등번호다.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등번호는 제2의 이름과 같다. 메이저리그에서는 FA로 이적한 선수가 예전 팀과 똑 같은 번호를 달기 위해 기존 주인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기도 하고 종종 거액의 현금을 줄 때도 있다. 그러나 이종욱과 손시헌은 기존 선수들의 양보로 산뜻하게 새 출발을 하게 됐다.

NC는 이제 갓 1군 데뷔시즌을 치른 팀이지만 39번은 나름 큰 의미가 있었다. 바로 데뷔시즌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낸 찰리의 번호



였다. 아무리 외국인선수라고 하지만 지난해 홀로 189이닝을 책임지며 11승7패, 방어율 2.48을 기록한 에이스기 때문에 등번호 양보를 청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찰리는 39번에 큰 애착이 없었고, 흔쾌히 옛 번호를 양보하고 비어 있던 등번호 11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다. 손시헌의 13번은 신인 내야수 최재원의 번호였지만 선뜻 대선배에게 양보했다. 분신과 같았던 39번과 13번을 새 유니폼에 새긴 이종욱과 손시헌은 “창단멤버는 아니지만 팀의 첫 4강 진출 멤버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lkh

LG, 1차 전지훈련 명단에 투수만 24명

전체 선수 절반 넘어…치열한 경쟁 예고
김기태감독 “일찌감치 투구모습 보고파”

LG는 3일 1차 전지훈련지인 미국으로 떠날 멤버를 확정해 발표했다. 선수만 47명이 참가한다. 이 중 투수는 전체 인원의 절반이 넘는 24명(외국인선수 2명 포함)이다. 지난해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류택현, 이상열, 정현욱, 봉중근, 류제국, 우규민, 이동현, 유원상, 김선규, 신재웅, 신정락, 임정우 등이 예상대로 이름을 올렸다. 수술을 받아 1년을 쉰 김광삼과 지난해 주로 2군에서 뛰었던 정찬헌, 최동환 등도 미국행 티켓을 받았다. 지난 시즌 종료 후 유니폼을 갈아입은 김선우, 신승현과 군복무를 마친 윤지웅, 신인 임지섭도 가세했다.

투수들은 1차 전지훈련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기태 감독(사진)은 “미국으로 투수들을 많이 데려가는 이유는 따뜻한 곳에서 일찌감치 몸을 만들어 투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어 “2차 전훈인 일본 오키나와 캠프는 실전 위주로 진행돼 투수를 많이 데려가도 등판 기회를 못 잡는 선수가 나온다. 올해는 오키나와로 이동할 때 투수 일부를 제외하고, 2군이나 재활군에 있는 야수들을 추가 발탁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는 2012년 탄탄한 불펜을 구성한 뒤 지난해에는 선발로테이션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토종 선발 중 10승을 달성한 선수가 2명 나왔고, 정현욱의 합류로 불펜은 한층 더 풍부해졌다. 그 결과 팀방어율 1위를 달성했다.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즉시 전력감 선수들이 대거 합류한 LG는 가용인원이 더 늘었다. 팀에는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투수 입장에서는 1군 엔트리에 포함되기까지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 전훈이 그 첫 번째 관문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전문기록원 양성 과정 18일 개강

KBO 공식 기록원 직접 강의…8일간 진행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4년 베이스볼아카데미 전문기록원 양성 과정’이 18일 서울대학교에서 개강한다.

프로·아마야구의 공식 기록원 양성과 사회인야구 기록원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제4기 전문기록원 양성 과정은 소양 교육, 야구 기록과 규칙을 중심으로 기록 업무에 필요한 각종 규정들을 심도 있게 다루며, KBO 공식 기록원과 외부 강사진의 강의로 진행된다.

4주에 걸쳐 총 8일간 진행되는 이번 과정의 수강 정원은 총 60명이다. 수강 대상자에게는 기록에 필요한 ‘공식야구규칙’과 ‘기록 가이드북’, ‘제본 야구기록지’, ‘풀어 쓴 야구기록규칙’ 등이 교재로 제공된다. 또한 과정 수료자에게는 본 과정의 성취도에 따른 수료증 및 등급 인증서(기준 성적 이상 취득자에 한함)를 발급한다.

수강 신청은 7~12일 사이에 KBO 홈페이지(www.koreabaseball.com), 베이스볼아카데미 홈페이지(www.baseballacademy.co.kr)에 공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인터넷(전화 및 방문접수 불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용석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